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6월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교회력으로 맥추절기인 7월 첫 주에 냉난방비 현금을 봉헌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시요.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여름 모임이 26일(목) 오후 7시에 효창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십시오. 이웃들의 숨결을 느끼며 그들과 더불어 열어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삶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앞서 걸어가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뒤따르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와 다가올 날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계속 되는 장맛비와 후텁지근한 날씨보다 이 사회에서 오고가는 공허한 말들로 우리의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려 말, 전혀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말, 예의를 잃어버린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바로 세우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웠던 예수님의 참말이 우리 입술에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강인식 김정숙 김정길 최숙화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박병구 박창운 허정윤 서원금 안정숙 정완수 김재광 문복순
최현선 양재성 권미숙

월정헌금:

김영한 이희균 김정애 박석희 조항미 송의섭 이봉배 이유선 방극숙
정두리 하정석 이명희 박찬정 최동운 이은자

감사헌금:

박병구 김정애 유증희 유한국 조항범 오현정 박범희 박미영 김근중
정옥영 김진경 송동준 권미숙 박준규 서지영 김남종 오복순 임 영
정경례 전성오 안준용 유경민 박창운 허정윤 정복순 한경숙 전세중
화요성서학당학생 무명3

생일감사헌금:

한완식 임정자 이형석 김근중 정옥영 이인웅 정현주 김 극

녹색공헌금: 김기석 권미숙 (누계: 500,000원)

	장혜숙	장혜숙	정두리	송임희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김영한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정복순
	문영혜	박경선	박경원	문영혜
	안정숙	박애순	조병주	문금석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교회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김재광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유영남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김희우
	송양진	유경순	유경순	김혜권
	이영란	박미영	이영란	배삼순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최영혜

홀로 산에 오르라

다람쥐 쳃바퀴 도는 일상에 지쳐 있을 때,
홀홀 털고 산에 오르라.

지천으로 쌓인 낙엽이

발 밑에 부서지는 소리와

계곡에 흐르는 맑은 물소리,

솔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를 벗해

홀로 산에 오르라.

그대의 마음을 옥죄던 일상이

낙엽처럼 부서지고

물소리, 바람 소리에 풀려

홀연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좁디좁은 쳃바퀴의 세상에 집착하던

아상(我相)이 깨지며

보다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이런 시야를 얻게 될 때

그대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게 되고,

거친 바위 위에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낙락장송의 기개가

파릇파릇 싹트게 되리니. (고진하)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환한 불 하나 밝히며 살아가겠습니다. 초저녁만 밝히는 불이 아니라 새벽 동틀 때까지 타오르는 불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오시는 주님의 걸음걸음 기쁜 마음으로 길 밝히는 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기도/권미정 집사	기도/안종일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장성호 선생 김재흥 목사	인도자 유경순 집사

6월	영접위원	한상의 박창운 박석희 허정윤 김금순 조항미
	헌금위원	방문성 장혜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얻는다는 것과 잃는다는 것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했을 때,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갈채를 보냈을 때 느낌이 어떠했는지 되새겨 보라. 그리고 그 느낌을 일몰이나 일출 혹은 일반적인 자연을 보았을 때, 또는 아주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았을 때 당신 안에서 일어났던 느낌과 비교해 보라. 이러한 느낌을 음미해 보고, 처음에 느꼈던, 즉 당신이 칭찬받았을 때 겪었던 느낌과 비교해 보라. 처음의 느낌은 자부심과 자기도취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라. 이것은 세속적인 느낌이다. 두 번째는 자기 실현, 영혼의 느낌에서 생겨난다.

여기 다른 비교가 있다. 당신이 성공하거나 뭔가를 해냈을 때, 최고가 되었을 때나 게임이나 도박 혹은 논쟁에서 이겼을 때 생기는 느낌은 어떠했는지 되새겨 보라. 그리고 이 느낌을 당신이 하는 일, 몰두하고 있는 일, 현재 하고 있는 행위를 진정으로 즐길 때 생기는 느낌과 비교해 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세속적인 느낌과 영혼의 느낌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인지해 보라.

또 다른 비교가 있다. 당신이 힘을 지녔거나 윗사람으로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보고 명령에 따르거나 혹은 인기가 있었을 때 느꼈을 만한 느낌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이러한 세속적인 느낌을 친밀함이나 동료로서 느끼는 느낌과 비교해 보라. 친구와 교체하거나 기쁨과 웃음이 있는 집단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느낌과 비교해 보라.

이러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세속적인 느낌, 즉 자아도취나 자부심이 가진 본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라. 이러한 느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가 당신을 생산적이고 제어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자연을 응시할 때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나 자신의 일을 즐길 때 생기는 자양분이나 행복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전율, 흥분, 그리고 공허함을 생산해 낼 뿐이다.

그리고 나서 하루나 일주일 동안 자신을 관찰하고, 공허함을 낳는 전율이나 흥분에 대한 욕망, 관심과 인정, 명성, 인기, 성공 혹은 권력에 대한 욕망에 물들지 않은 행동들이 얼마나 행해지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라. 이러한 세속적 느낌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이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단 한 명이라도 이러한 느낌에 지배되지 않고, 그것을 갈망하지 않으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깨어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이 이러한 것을 눈여겨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얻으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잃어가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혼이 없는, 공허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곰곰이 생각할 만한 비유적인 삶이 있다. 한 무리의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호수와 산, 푸른 들과 강이 어우러진 아주 아름다운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버스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그들은 창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여행기간 내내 누가 버스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칭송받게 될 것인지, 누가 존경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승강기를 벌이면서 보낸다. 그리고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계속 그렇게 보낼 것이다.

--안소니 드 멜로, <<사랑에 이르는 길>> 중에서

우리 마음은 항상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지요 우리 머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잠시 휴식을 취할 여유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휴식을 부르짖고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저 역시 꼭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애원은 무시하다가 결국엔 지치고 병이 들어서 모든 것을 중단해야 했지요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자아에게 모든 일을 상담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